

교육실습보고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

학번 :

학과 : 수학교육과

이름 :

실습학교 : 인천 옥련중학교

실습과목 : 수학

수학교육과 4학년이 되고 다른 교직 이수자들과 사범대생과 마찬가지로 교육실습과목을 이수 하게 되었다. 이수학점 2학점인 많은 교직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나에게겐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설렘과 교직실습을 하며 새롭게 도전 해 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 나를 이끌어 주신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 선생님의 의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교사가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모든 학생들에게 나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꿈을 꾸며 목표에 도달하려 노력했고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된 지금도 그 열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사실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3년에 군 휴학과 3년의 재학생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알게 되고 교육을 알게 되고 수학을 좀 더 깊게 배우게 되면서 꿈이 더 커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르쳐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목표로 대학교 3년 생활동안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과외 및 멘토와 교육봉사와 같은 많은 교외 활동으로 조금씩 이나마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힘든지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실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정식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험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이번 교육실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교육실습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가르쳐왔던 것을 토대로 정말 내가 꿈꿔오던 교사의 모습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교육실습 장소는 내가 졸업한 중학교인 인천에 옥련중학교라는 곳이다. 추억이 있는 곳이고 후배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옥련중학교를 가게 되었다. 교육실습 하기 전 대학교 수업을 모두 마치고 인천에 내려가 교육실습을 하기 위한 준비부터 하였다. 몸과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중학교에 간 첫 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교육실습생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들었다. 1주차는 각 부서 부장님들에게서 부서별 업무 설명을 듣는 주이고 2주차에는 본격적으로 교육실습생이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참관을 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연구하는 주로 일정이 잡혔다. 3주차에는 수업참관을 하며 구상하고 연구했던 수업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실제 수업실습을 하는 주간이다. 3주차 마지막 날에는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다른 교생들도 모두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는 연구수업을 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학교 사정상 4주차는 시험 전 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실습 활동은 없는 것으로 예정이 잡혔다.

이렇게 교육실습을 시작하게 된 첫째 날이 지나고 다음날부터 교육실습 일정을 시작했다. 인성상담부, 진로진학부, 과학정보부,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에서 각 부서별 업무사항을 설명 받았다. 각 부서는 학교마다 조금씩 부서명이나 업무분담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고 했다. 사실 첫 번째 주 부서별 업무설명을 들으면서 교사가 하는 일이 단순히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행사기획, 업무전달, 인사, 홍보, 연구, 업무보고 등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부서는 각자 맡은 업무대로 학교행사나 업무를 처리하고 부서장의 주도아래 각 부서원들이 구체적인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새삼 내가 몰랐던 교사의 실제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새롭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교사의 주된 업무는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교육자

제가 2차적인 업무가 되는 건 아닌지 아쉽기도 하였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 분담이 상당히 전문적,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실제로도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학교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이로울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학교가 잘 운영된다면 운영되는 목적인 학생들에게도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이 학교만의 특색 사업이나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시도하는 업무들을 보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다. 교사-학생간의 멘토-멘티가 아닌 학생-학생간의 짝을 이뤄서 멘토-멘티를 하는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과 학교에 대한 흥미를 주기위해 시행하는 스포츠데이 등 학력신장과 체력증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았다. 그 외에도 효 실천 주간이나 아침 독서시간, 한문쓰기 시간, 영어듣기 시간 등을 배정해서 여러 부분에서 학생들의 능력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었다. 부서별 업무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교사의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정업무나 학생들 교육을 위해 신경써야하는 다른 부분까지 알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도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2주차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수업참관을 시작했다. 1주차에는 업무설명만 듣느라 반 학생들에게 인사정도만 하고 얼굴한번 못 봤는데 2주차부터는 아침 등교시간 교문에서 학생들과 인사하면 학생맞이를 시작하고 조회, 종례와 생활지도 등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내가 담임을 맡은 반은 1학년 1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 그런지 아직 초등학생의 느낌이 많이 났고 교과지도보다는 생활지도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다. 2주차부터는 3주차 실제 수업을 위해 현직교사의 수업참관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지도교사의 수업을 주로 참관하면서 다른 수학교사의 수업을 참관했고 시간이 생기면 타 과목의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실제 3주차에 수업을 해야 하는 학년은 1학년 이지만 수업참관은 실제 수업하는 학년에 관계없이 전 학년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1학년 학생들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학생들 개개인이 너무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다. 교육실습생들에게도 1학년 학생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다. 학생들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교육실습을 하면서 꼭 이루겠다고 다짐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친해지는 것이었다.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이름을 외우고 이름을 부르고 쉬는 시간이나 틈새 시간이 생기면 학생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했다. 학생들과는 빠르게 가까워 질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내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친해질수록 문제점이 나타나났다. 조회와 종례 그리고 청소지도 및 생활지도 할 경우 학생들이 교육실습생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점 이었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무섭게 대하며 지시를 하면 잘 따랐지만 친해지면서 학생들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행동하는 것 같았다. 특히 조회를 하며 독서지도를 할 때와 종례를 하며 조용히 해야 하는 상황을 지도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 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특징인지 여기저기서 소란스럽고 조용히 하라는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다. 결국에는 담임선생님의 말대로 어느 정도의 벌과 혼내는 것을 통해 해결이 되었지만, 그것 외에 다른 수단을 찾기가 어려워 보였다. 그래도 끝까지 학생들에게 벌이 아닌 이해로써 학생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역시나 마지막에는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업참관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수업 형태와 방향을 잡기도 했다. 3주차 수업을 할 때 수업참관을 하며 배웠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수학수업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 모두가 개념을 모른다는 가정 하에 개념설

명을 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 이미 선행학습을 통해 배운 학생들은 수업을 지루해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다. 특히나 수학수업의 경우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은 중학교1학년 학생이 중학교3학년 내용까지 알고 있는 학생도 있었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계산을 못 하는 학생도 있었다. 수업을 보고 학생들이 문제 풀이하는 시간에 둘러보고 개별지도를 해주며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한 부분이었다. 과연 어느 학생의 기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교육현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멘토, 과외, 교육봉사에서는 소수의 인원만을 가르치고 또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만 가르치다보니 실제로 수준차이가 심하게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했다. 게다가 고등학교 수업과 달리 중학교 수업에서는 교과외 전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의 수업에서도 선생님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통제 한 뒤 수업을 진행 하였고 여러 방법을 써도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유도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사실 난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모교로 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왔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가르치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를 선택해서 오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와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학생들 간의 학력차이가 심했었고 학교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수업을 수준별로 진행 했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다시 원래대로 수업을 한다고 했다. 수업참관 하는 내내 학생들 통제방식을 보고 내용전달방식을 주로 보았다. 그리고 내가 수업 할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생각하며 참관했다. 현직 교사들은 수업에 능숙하고 노련해 보였다. 재밌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부터 개념설명을 위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짝 멘토-멘티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계셨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수업 내용보다는 재미있는 어투와 행동을 하는 선생님의 수업에 관심이 커 보였다.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수학의 학력편차가 가장 심해 보였고 수업시간에도 수학이란과목과 평가가 가지는 특성 그리고 교육과정의 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주로 선생님들은 별점과 상점을 이용해서 발표를 시키고 전체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여러 가지 수업방식과 모형을 보면서 내가 수업해야 할 수업준비를 가상으로 해 보고 연구 해 보았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100% 수업에 집중하게 만들기는 힘들어 보였다. 특히 뒤에 앉은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수업참여도가 떨어졌다. 수업 참관을 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에 흥미를 주면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2주차에서 다른 교육실습생들과 달리 색다른 경험을 한 가지 했다. 3학년 학생들이 1주차에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학탐방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 옥련중학교 졸업생이면서 현재는 성균관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배로써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교에 관한 설명이나 꿈과 진로에 관하여 학생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게 수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3학년 각 반을 순회하며 40분 정도씩 수업을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내 경험을 얘기해 주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처음부터 모교에 온 목적이기도 하고 대학교 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번 도 잊지 않았던 목적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내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0분 수업이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말해 주고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서 수업을 진행했다. 아

직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아서 실제 수업 전 연습이 되기도 했다. 3학년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 40명의 학생 앞에 선다는 두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준비해온 것들을 정확히 전달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잘 전달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긴장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다행히 졸업생이면서 대학탐방을 다녀 온 성균관대학교 교육실습생이 하는 말이어서 그런지 집중해서 끝까지 말을 들었고 수업을 한 번씩 끝낼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 본 결과 학생들이 무언가 깨달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3학년 수업을 끝내고 나니 이번엔 1학년 학년 주임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다. 2주차 수업참관 및 학생들 개별지도와 조회, 종례를 하고 진로수업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었다. 게다가 이번엔 1학년 까지 진로에 대한 수업을 부탁받아서 난감하기도 했다. 특히 1학년은 아직 진로나 꿈에 대해서 3학년만큼 고민하지 않을 시기이고 3학년에 해주었던 말을 해본들 학생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없을 거 같았기 때문에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 보자는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1학년 까지 수업을 하게 되었다. 대신 1학년 학생들에게는 3학년들에게 수업했던 방식이나 내용을 바꾸어서 남학생들 반에서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수학에 흥미를 끌만한 내용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수업을 했다. 그리고 1학년 여학생들 반 수업에서는 3학년과 동일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방법과 언젠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과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위주로 수업을 했다. 몇 일간 본 학년의 특성과 성별을 특성을 고려해서 각기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의 반응은 뜨거웠다. 3학년 학생들은 나의 경험과 이야기로 많은 것을 깨닫고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된 학생들이 있었다. 1학년 남학생들은 답을 주지 않은 수학퀴즈에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의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여학생들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좋았다고 피드백을 해주었다. 이렇게 힘들게 2주차를 보냈지만 누구도 하기 힘든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보람을



느꼈다. 열심히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기도 해서 더욱 색다른 경험이었다. 2주차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 안 쓰던 목을 열정적으로 쓰다 보니 3주차 수업을 하기도 전에 침을 삼키면 따가울 정도로 목이 아파졌다. 병원에 가도 달리 효과가 있는 처방보다는 목을 쓰지 말고 보호하라는 말 뿐이었다. 실제 체험해 보니 선생님들은 평소에도 목소리를 조절하며 수업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교사라는 직업은 목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3주차에 와서 드디어 기대하고 고민하기도 했던 수업을 시작했다. 총 3차시를 1학년 다섯 개의 반에 15시간 수업을 하기로 예정을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전 시간인 14시간째에 연구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교사와 상의를 했다. 참관을 하며 보았던 학생들의 실력을 고려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모델삼아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첫 수업은 흑독했다. 자신감 하나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긴장은 없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수업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첫 수업은 내 예상을 빗나갔다. 수업 내용 설명부터 시작해서 수업진행

순서와 학생들 반응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당황했던 부분까지 모두 스스로 낙제점을 주고 싶을 정도였다. 지금까지 적지 않게 학생들을 가르쳐왔다고 생각했고 40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이런 자신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첫 수업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수업, 정확한 개념과 깨달음을 주는 수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과욕이었다. 첫 수업은 단지 열정만 앞 선 수업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지도교사님은 나에게 고쳐야 할 목록을 알 기 쉽게 차례가 있는 목록으로 타이핑해서 한 부분 한 부분 자세하게 알려 주셨고 두 번째 1차시 수업을 할 때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울 수 있었다.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조차 학생들은 모르고 있는데 주로 고등학생들만 가르치다 보니 수업내용을 준비하며 또는 수업진행 중 자주 그것을 망각하며 수업을 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선행 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그 내용은 처음 보는 내용이고 이해를 하계끔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수업 중에는 똑같은 개념이라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쓰는 용어로 설명을 해버리는 실수도 하였다. 두 번째 수업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고쳐졌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밤새 준비하고 연습을 했다. 그리고 의욕만 강하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충고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말 해 주었다. 수업은 계속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갔고 판서 계획, 수업진행, 수업순서, 학생들과의 호흡, 어투, 행동, 모든 부분에서 익숙해짐을 느꼈다. 처음에는 수업 방식이라 던지 내용설명을 나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의욕만 앞선다는 것을 깨닫고 평범하게 전체수업 방식으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방식이 익숙해 질 때쯤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수업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처음 목적 그대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재밌어하고 수학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며 학력차이에 상관없이 45분 수업을 들으면 수학실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계속 수업을 해 나갈수록 수업하는 차시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나 수업상황에 능숙해 졌고 수업 진행 중에도 때에 따라 학생들에게 맞추어서 방법을 바꾸기도 했다. 평상시는 선생님들이 평소에 하던 수업대로 진행을 하였고 교과서내용에 충실하며 수업순서도 그대로 따라서 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은 집중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집중을 못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수업 중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며 수업을 진행 했지만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까지 끌고 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수업하는 내내 들곤 했다. 또한 남학생반과 여학생반이 나뉘어져 있어서 수업을 하기 더욱 힘들었다. 수업스타일 자체를 다르게 해야 했기 때문에 각 반 마다 대처하기가 힘들었고 특히 남학생들 반에서는 수업보다 학생들의 통제가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여학생들 반에서는 오히려 수업하기는 수월하지만 남학생들만큼의 수학의 흥미나 반응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만 했다. 수업을 하는 동안 24시간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모든 학생들을 참여 시키고 수학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알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사의 딜레마를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도 선생님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책을 찾고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수업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 했던 수업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연구수업을 3일 밤을 새며 준비했고 마지막 날까지 수정작업을 거친 후 완성이 되었다. 연구수업이라고 해서 보여주기 식 수업이 아닌 교장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본다고 해서 그들에 맞추어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다. 단 한 번의 수업이지만 몇 번을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총

동원해서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업을 만들고 싶었다. 결국 내가 생각한 수업 모형은 조별 문제풀이 협동 수업이었다. 수업에 대한 나만의 열정과 진심 그리고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도교사의 자세하고 근본적인 개념설명, 그리고 학생들 간의 멘토-멘티 시스템에서 착안한 조별 문제풀이 수업, 그리고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흥미를 끄는 매체활용 등이 연구수업의 기본적인 방식이다. 옥련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시스템인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였다. 누군가를 가르치면 그 개념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놓쳤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게다가 모르는 학생도 선생님들에게는 질문을 잘 안하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는 아무 불편 없이 질문하고 배우면서 친구와 친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같은 또래 입장에서 이해하며 설명을 해 주면 교사의 설명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수업에 비슷한 방식을 도입해 보고자 했다. 수업은 40명에게 45분 동안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 멘토-멘티 수업은 자칫 수업이 산만 해 지거나 학습능력이 좋은 학생이 1명씩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조별 멘토-멘티 수업을 생각해 내었다. 조별로 토의와 토론까지 하면서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수학수업을 할 때 토의와 토론식 수업은 수업시간적인 여유와 내용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별 멘토-멘티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를 제시하고 조별경쟁을 유도했다. 즉, 문제를 조별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6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진행을 하는 데 한 번에 4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문제풀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드는 조를 지목하고 지목한 조에서 랜덤으로 4명을 뽑아서 문제풀이를 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문제는 4문제이지만 조원 모두가 풀이 방법을 알아야 하게끔 했고 조별경쟁을 유도하는 상점과 상품들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했다. 이번 조별수업은 남학생 반이 아닌 여학생 반에서 진행을 했다. 조별모임자체가 워낙 활동적인 수업이고 남학생들은 조별이동을 하는 순간 난장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통제가 힘들다고 해서 여학생 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를 만드는 과정도 학생들의 실력을 고려해서 미리 조사한 성적과 수업 흥미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를 구성했다. 연구수업 전 연구수업반의 학생들 수학성적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흥미도와 수학실력을 체크했고 개별 학습 지도를 통해서 학습수준이나 수업설명 방식을 확인하기도 했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 동일차시 수업을 다른 반에서 연습해보고 마지막으로 수정작업을 거쳐 수업을 했다. 수업당시 교장선생님 및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보러왔고 다른 교육실습생들도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수업을 하는 내내 뒤에 선생님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도 못했고 보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 할 정도로 수업에 스스로가 빠져있었다.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수업에 몰입이 되었고 원하던 대로 개념설명을 기본부터 충실히 했고 문제풀이 시간에 조별협력 문제풀이를 유도하는 것도 아주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 조별협력 문제풀이를 할 때는 중간에 둘러보며 살펴보았는데 문제를 푼 1명의 학생이 1명씩 말아서 열심히 설명하는 조도 있었고 조별로 1~2명이 대표로 조원 전체에게 설명하는 하는 조도 있었다. 조별 토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뿌듯해졌다. 내 예상보다 조별협력 문제풀이는 활발히 이루어졌고 가르쳐주는 학생은 그 학생대로 새로운 걸 깨닫고 알려주는 방법을 터득했으며 평소 수학수업에 흥미도 없고 수학을 배우려고 하지 않은 학생도 친구한테 가르침을 받으며 열성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단,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조 구성을 수준별로 짜 맞추다보니 트러블이 생기는 조가 생겼다는 점이다. 한 조가 조원 끼리 친하지 않다는 이유

로 분위기가 싸늘했고 실제로 수업에도 참여율이 저조 했다. 처음부터 우려하던 일이었고 이 수업의 큰 단점이기도 한 부분이었다. 지도 선생님은 이런 부분까지 모두 커버할 수는 없다고 하셨고 나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잘 해주길 바랐지만 그 모습을 보니 그런 학생들을 챙기지 못 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수업 중간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탄사가 나왔다. 15 시간 수업했던 중 처음 들어 보기도 했다. ‘아’라는 감탄사인데 수학을 공부하는 중 이 감탄사는 강제로 나오지 않는다. 실제 무언가를 깨닫고 흥미를 느끼는 순간 저절로 ‘아’라는 감탄사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수업 중 이 감탄사가 나오는 걸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흥이 나서 학생들에게 반응을 해버렸다. 수업은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이 되었고 끝날 때쯤엔 스스로에게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반에도 이러한 수업을 하지 못 한 것이 또 한 가지 아쉬움이였다. 이 수업의 단점 두 번째가 바로 모든 학생들이나 반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스로도 이번 수업은 연구수업이고 한 번의 수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특성이나 분위기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모든 수업에 적용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보였다.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피드백을 여러 선생님께 받았다. 장점으로선 모두들 조별협력학습 수업방식이 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하셨고 단점으로는 교사가 스스로 너무 흥분된 상태로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연구수업을 하며 모든 기운을 다 쓴 듯 한 느낌을 받았고 스스로 최고의 수업을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내 수업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담임 반 학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수업 한 번으로 그 반의 학생들과 진심으로 통 할 수 있었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들었던 모든 말 들이 내 수업이 성공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연구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중 가장 큰 깨달음은 **100% 모든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해도 100% 모든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모두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조별수업을 싫어하는 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밤을 새며 노력한 결과를 보았고 조별수업을 싫어했던 학생조차 수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교사의 진심을 알아주었다. 교사의 이런 노력이 학생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내 꿈과 목표가 분명 이루어 질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3주차 연구수업과 마지막 수업을 학생들과 아쉬운 작별을 통해 끝내고 4주차에는 시험을 위해서 교육실습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 이제 학생들과 많은 교감을 나누고 친해져서 개별적인 지도와 상담을 많이 했고 많은 조언을 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생활지도면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접촉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 학생들과 작별인사를 할 때는 4주간의 짧은 생활동안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는지 여학생들 중 몇 명은 울고 그 모습을 본 나도 눈시울이 붉어 졌다. 특히 담임이었던 반의 남학생들이 마지막 깜짝 파티를 해주었을 때는 울지는 않았지만 감동 그 자체였고 연구수업을 했던 반 학생들한테는 마지막까지 너무 고마운 선물들을 집에 가져가기 힘들만큼 받았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준 2,3학년 학생들도 직접 와서 마지막 선물과 편지 그리고 작별인사를 했고 다음에 꼭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마지막 교문을 나서면서 까지 내가 만났던 모든 학생들이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고 그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교육실습...2학점 이수하는 교직과목 중 한 개이지만 내 목표와 꿈과 관련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교사의 모습과 관련해서 잊지 못 할 추억과 경험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교직실습동안의 경험은 평생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았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 대학교 4학년으로 돌아가고 수학교육과 예비 임용시험 준비생으로 돌아가서 힘든 여정을 보내야겠지만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 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을 받은 것 같다.